

[2012년 4월 7일 국가직 국어 기출문제 해설]

- 웅진패스원 신동수 선생 -

문 1. 우리말 표현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② 우리가 기름을 아껴 쓴다면 자원의 낭비도 막고 깨끗한 환경도 유지할 수 있다.
- ③ 시민 각자가 환경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 ④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쾌적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정답] ②

[해설] 문장 표현에서 조응 규칙(접속한 두 문장의 구조가 문법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하는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앞뒤 절이 동일 구조인지, 또는 부당한 생략이나 공유가 있는지 유의하여 살펴본다. ②번은 '(만일) ~한다면 ~도 하고 ~도 할 수 있다.'의 구조이며 바른 표현이다.

[오답풀이]

- ① ⇒ ~ 인식이 변화되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③ ⇒ ~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환경 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 ④ ⇒ ~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쾌적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문 2.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경찰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갔다.

- ① 그는 장사꾼의 손에 놀아날 정도로 세상 물정에 어둡다.
- ② 제삿날 손을 치르고 나면 온몸이 쭈신다는 사람들이 많다.
- ③ 마감 일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서 더 이상 손을 늦출 수가 없다.
- ④ 대기업들이 온갖 사업에 손을 뻗치자 중소기업들은 설 곳을 잃게 되었다.

[정답] ④

[해설] 다의어와 이의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문제이다. 보기문의 '손'은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뜻하며, ④번이 같은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오답풀이]

- ① '수완이나 잔꾀'를 뜻하는 말로 부정가치어로 쓰인 경우이다.
- ②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 즉 손님을 뜻하는 말로 다른 '손'과는 이의 관계에 있는 말이다. '손(을) 치fms다'는 말은 큰일에 여러 손님을 대접한다는 말로 쓰이는 관용구이다.
- ③ '일손'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문 3.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ㄱ. 또한 실천적 측면 가운데 내적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善), 외적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의(正義)이다.
 ㄴ.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념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기 마련이다.
 ㄷ. 흔히들 숭고한 이념이나 가치로 진리·선·정의를 언급하기도 한다.
 ㄹ. 진리는 인간 생활의 이론적 측면으로 나타나고, 선·정의는 인간 생활의 실천적 측면으로 나타난다.

- ① ㄴ-ㄷ-ㄱ-ㄹ
- ② ㄴ-ㄹ-ㄱ-ㄷ
- ③ ㄷ-ㄴ-ㄱ-ㄹ
- ④ ㄷ-ㄹ-ㄱ-ㄴ

[정답] ①

[해설] 문장을 논리적으로 배열하는 문제이다. 구성 방식과 구분의 과정, 주요 개념어의 연결성, 그리고 접속어 등에 유의하여 정리하면 된다. '이념과 가치-진리-선-정의-각각의 특성을 구분하고 구체화함'의 순서에 따르면 ①번이 답이 된다.

문 4. 다음 글에 나타난 서술 방식으로 옳은 것은?

프레임(frame)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 프레임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우리가 짜는 계획,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행동의 좋고 나쁜 결과를 결정한다. 정치에서 프레임은 사회 정책과 그 정책을 수행하고자 수립하는 제도를 형성한다. 프레임을 바꾸는 것은 이 모두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변화이다.

프레임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대중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을 바꾸는 것이다. 프레임은 언어로 작동되기 때문에, 새로운 프레임을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가 요구된다. 다르게 생각하려면 우선 다르게 말해야 한다.

구제(relief)라는 단어의 프레임을 생각해 보자. 구제가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고, 고통 받는 자가 있고, 그 고통을 없애 주는 구제자가, 다시 말해 영웅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영웅을 방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구제를 방해하는 악당이 된다.

- | | |
|------|------|
| ① 인용 | ② 분류 |
| ③ 예시 | ④ 서사 |

[정답] ③

[해설] 글의 서술 방식(설명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프레임'의 개념을 설명하는 글로서 정의의 서술 방식과 더불어 '구제'라는 단어를 프레임의 예시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예시의 서술 방식을 활용하였다.

문 5.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집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더욱 익숙하다. 이 말은 '집은 혹은 건축은 단순히 기술적·구조적인 측면에서, 세우는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짓고 밥을 짓듯이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일련의 사고 과정을 통하여 뭔가 만들어내 가는 것'이란 뜻이다. 이는 우리 선조들이 건축을 가리켜 영조(營造)라 일컬었던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일본인들이 메이지 시대 때 만든 '건축'이라는 말의 뜻으로는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축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다. 건물이 (㉠) 환경을 뜻한다면 건축은 그것을 포함하는 (㉡) 환경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 | | |
|----------------|--------------|
| ㉠ | ㉡ |
| ① 경제적(經濟的) | 문화적(文化的) |
| ② 물리적(物理的) |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
| ③ 현실적(現實的) | 이상주의적(理想主義的) |
| ④ 천편일률적(千篇一律的) | 다원론적(多元論的) |

[정답] ②

[해설] 문맥상 생략된 어휘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이 글의 문맥에서 '건물'에 해당하는 구절과 '건축'에 해당하는 구절을 추출하여 개념화하면 되겠다. '건축'은 '단순히 기술적·구조적 측면에서 세우는 일'이라고 했으므로, 선택지 중에서 '물리적(물질의 원리에 기초한) 환경과 부합된다. '건축'은 '짓는 것',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일련의 사고 과정을 통하여 뭔가 만들어내 가는 것', '영조(營造)',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건물'은 '형이상학적(사물의 본질이나 존재의 근본 원리에 관한) 환경'과 부합된다.

문 6. 밑줄 친 것 중 보조사인 것은?

- ① 이 물건은 시장에서 서 사 왔다.
- ② 개는 늑대와 비슷하게 생겼다.
- ③ 그것은 교사로서 할 일이 아니다.
- ④ 나는 거칠 것 없는 바다의 사나이다.

[정답] ④

[해설] 부사격 조사는 선행 체언에 붙어 부사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이고, 보조사는 어떤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이다. ‘은/는, 도, 만, 까지, 마저, 조차, 부터’ 따위가 보조사에 해당된다. ①, ②, ③번의 ‘에서, 와, 로서’는 부사격 조사, ④번의 ‘는’은 보조사이다.

문 7.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것만으로 묶인 것은?

영희는 책을 집에 놓고 학교에 갔다.

- ① 놓-, 가-
- ② -고, -쓰-
- ③ 영희, 책, 집
- ④ -는, -을, -에

[정답] ①

[해설]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은 용언의 어간이다. 참고로 한자어 ‘학교’에서 각각의 형태소 ‘학’과 ‘교’에 대해서는 의존 형태소로 볼 것인지 자립 형태소를 볼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영희(실질, 자립)/는(형식, 의존)/ 책(실질, 자립)/을(형식, 의존)/ 집(실질, 자립)/에(형식, 의존)/ 놓-(실질, 의존)/고(형식, 의존)/ 학(실질, 의존)/교(실질, 의존)/에(형식, 의존)/ 가-(실질, 의존)/-쓰-(형식, 의존)/ 다(형식, 의존).

문 8. 언어 예절에 맞는 것은?

- ① (같은 반 친구에게) 철수야,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오시래.
- ②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선생님, 저는 김해 김씨입니다.
- ③ (점원이 손님에게) 전부 합쳐서 6만 9천원 되시겠습니다.
- ④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에서) 할아버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답] ④

[해설] ④번에 쓰인 ‘말씀’은 공대한 말(높임말)이 아니고 겸양어(낮춤말)로 쓰인 것이며, 바르게 표현되었다.

[오답풀이]

- ① 오시래 ⇒ 오라서
- ② 김해 김씨입니다 ⇒ 김해 김가입니다
- ③ 6만 9천원 되시겠습니다 ⇒ 6만 9천 원입니다.

문 9. 밑줄 친 단어 중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불 줌 찌어야겠구나.
- ② 선배님, 다음에 배요.
- ③ 점점 목을 죄여 오는 느낌이야.
- ④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사고는 좋지 않아.

[정답] ③

[해설] ③ ‘조이어’를 축약하면 ‘죄여, 조여’ 등으로 써야 한다.

[오답풀이]

- ① ‘찌이어야겠구나’를 축약한 표현이다. ③번과 마찬가지로 ‘조이어’의 준말은 ‘죄여’, 또는 ‘쪼여’이다.
- ② ‘배어요’를 축약하면 ‘배요’라고 쓴다.

④ 인용절 내에서 ‘되라고’, ‘되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 바르다.

문 10. 다음에 제시된 단어를 사전 등재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은?

ㄱ. 가름하다	ㄴ. 개울	ㄷ. 게
ㄹ. 까다	ㅁ. 겨울	

- ① ㄱ-ㄴ-ㄷ-ㄹ-ㅁ
 ② ㄱ-ㄴ-ㄹ-ㄷ-ㅁ
 ③ ㄴ-ㄱ-ㄷ-ㄹ-ㅁ
 ④ ㄴ-ㄱ-ㅁ-ㄷ-ㄹ

[정답] ③

[해설] 사전에 올리는 자모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자음 : ㄱ, ㅋ,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ㅆ, ㅇ, ㅈ, ㅊ, ㅊ, ㅋ, ㅌ, ㅍ, ㅎ
 ·모음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 ㅞ, ㅟ, ㅟ, ㅠ, ㅢ,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ㅿ, ㅿ

문 11.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만으로 묶인 것은?

언어순결주의자들은 국어의 혼탁을 걱정한다. 그들은 국어의 어휘가 외래어에 감염되어 있다고 개탄하고, 국어의 문체가 번역 문투에 감염되어 있다고 지탄한다. 나는 국어가 혼탁하다는 그들의 진단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혼탁을 걱정스럽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선, 국어의 혼탁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외판점에 이상향을 세우고 쇄국의 빗장을 지르지 않는 한 국어의 혼탁을 막을 길은 없다.

그러나 내가 국어의 혼탁을 걱정하지 않는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불순함의 옹호자이기 때문이다. 불순함을 옹호한다는 것은 전체주의나 집단주의의 단색 취향, 유니폼 취향을 혐오한다는 것이고, 자기와는 영 다르게 생겨 먹은 타인에게 너그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른바 토박이말과 한자어(중국산이든 한국산이든 일본산이든)와 유럽계 어휘(영국제이든 프랑스제이든)가 마구 섞인 혼탁한 한국어 속에서 자유를 숨 쉰다. 나는 한문 투로 휘어지고 일본 문투로 굽어지고 서양 문투로 닳은 한국어 문장 속에서 풍요와 세련을 느낀다. 순수한 토박이말과 토박이 문체로 이루어진 한국어 속에서라면 나는 질식할 것 같다. 언어순결주의, 즉 외국어의 그림자와 메아리에 대한 두려움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박해, 혼혈인 혐오, 북벌(北伐)·정왜(征倭)의 망상까지는 그리 먼 걸음이 아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순화’의 충동이란 흔히 ‘죽임’의 충동이란 사실이다.

- ① 혼탁, 불순, 감염, 섞임
 ② 자유, 풍요, 세련, 순결
 ③ 외판점, 쇄국, 빗장, 북벌
 ④ 단색, 유니폼, 순화, 전체주의

[정답] ①

[해설] 필자가 이 글에서 어떠한 가치 인식(긍정가치, 부정가치, 중립가치)을 바탕으로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쉽게 말해서 글쓴이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사용한 어휘를 고르라는 문제이다. 필자는 두 가지 근거(불가피함, 불순의 옹호자)를 들어 국어의 혼탁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부정가치어로 쓰이는 ‘혼탁, 불순, 감염, 섞임’ 따위를 긍정가치어로 사용하고 있다.

문 12. 밑줄 친 단어와 문맥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 ① 관찰하고
 ② 예언하고
 ③ 간주하고
 ④ 전망하고

[정답] ④

[해설]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사회간접자본 지출을 통해 경기 부양의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정부가 '전망(展望)하고'(앞으로의 상황을 해아려보고) 있다는 내용이다. '낙관적'(앞으로의 일 따위가 잘되어 갈 것으로 여기는)과 잘 어울리는 말이다.

[오답풀이]

- ① 관찰(觀察)하다: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다.
- ② 예언(豫言)하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하다.
- ③ 간주(看倣)하다: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

문 13. 다음 작품이 지닌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나를 흠발로 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낚아잡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

- ① 높임법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② 공감각적 비유로 정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수미 상관의 방식으로 구조적 완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두 제재의 속성과 관계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정답] ②

[해설] 이 시는 경어체와 여성적 어조를 사용하여 경건성과 진심성을 높이고, 수미상관의 구성과 반복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과 운율감을 형성하였다. 제도(濟度)의 수단 '나룻배'와 그 대상인 '행인'을 제재로 '인내와 희생을 통한 자비심의 실천'이라는 주제 의식을 잘 형상화한 작품이다.

[오답풀이]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따위와 같이 공감각적 비유를 활용하여 정서적 분위기를 조성한 표현은 없기 때문에 ②번이 정답이다.

문 14. 다음 작품을 내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詩人)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靈魂)과 육체(肉體)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 김수영, '눈' -

- ① 시인의 의지적 삶이 곳곳에서 느껴져.
- ② '눈'과 '기침하는 행위'의 상징성이 뚜렷이 부각되고 있어.
- ③ 시인은 죽음조차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
- ④ 4.19 혁명 이후, 강렬한 현실 인식에서 나온 작품인 것 같아.

[정답] ②

[해설] 작품 이해의 관점에 관한 문제이다. 내재적 관점은 작품 자체만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으로, 작품 자체의 구조와 요소, 표현, 어휘 등을 분석한다. 절대주의적 관점, 구조론, 존재론이라고도 한다. ②번은 시어의 상징적 표현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 해당된다.

[오답풀이]

①, ③번은 작품의 생산 주체인 작가의 체험·사상·의식·감정 등과 결부하여 이해하는 표현론의 관점이, 그리고 ④번은 당대 사회 현실과 결부하여 이해하는 반영론의 관점이 나타나 있다.

문 15. 밑줄 친 단어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석가나 예수는 만천하의 대중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밝은 길을 찾아 주며, 그들을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커다란 이상을 품었다. 그러기에 길지 아니한 삶을 살았음에도, 그들의 '그림자'는 천고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 | | |
|----------|----------|
| ① 형상(形象) | ② 상념(想念) |
| ③ 업적(業績) | ④ 후예(後裔) |

[정답] ③

[해설]

문맥적 의미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우선 '그림자'의 사전적 의미는 '늘 따라다니는 것', '자취' 등이다. 그리고 '천고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으니 가치 있는 어떤 것일 것이다. 결국 '석가나 예수'가 행하고 남긴 업적을 '그림자'로 표현한 것이다.

[오답풀이]

'형상(形象)'은 모양이나 상태, '상념(想念)'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생각, '후예(後裔)'는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 1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칠수: 그렇다고 껌 값 모아 재벌 되냐? 그래 매달 오만 원씩 적금 넣고 몇만 원씩 갯돈 붓고 아침, 점심, 저녁 라면 먹고 숙직실에서 몽개면 너 환갑 때쯤 돈 몇천만 원 모을 수 있을 줄 알지? 근데 그 돈으로 집 한 채 장만 못 해. 넌 틀렸어, 임마. 야! 너 전에 이 씨 알지? 서울 역 앞에서 가스 환기통 해 주던 아저씨 말이야. 그 아저씨 별명이 뭔지 아냐? 소야, 소! 정말 그 아저씨 여태 돈 모으는 재미 하나로 살았다. 일만 있으면 지방으로 산꼭대기로 어디든지 밧줄 메고 찾아갔어. 그러다가 십 몇 년 만에 그럴듯한 연립 하나 장만했지. 근데 그동안 너무 못 먹고 과로했는지 몸을 버렸나 봐. 하여튼 비쩍비쩍 마르고 빌빌하기에 우리가 끌고 병원에 갔다. 간경화래! 중중이더라구. 근데 그 아저씨 겨우 장만한 집 한 채 병원비로 다 날리고 다 죽네, 어찌네, 해서 병원에서 그냥 나왔어. 눈만 안 감았지, 몸은 장작개비처럼

비쩍 말라 가지고 죽을 때만 기다리는 거야. 야! 근데 그 아저씨 지금 뭐라는 줄 아냐? 세상을 미련하게 살았대! 알긋냐? 몸 팔아서 번 돈 다 몸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식아.

— 오종우, ‘칠수와 만수’ 중에서 —

- ① 칠수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있어.
- ② 칠수의 대화 상대는 착실하고 검소한 사람인 것 같아.
- ③ 칠수는 다른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 상대를 설득하고 있어.
- ④ 칠수는 시종일관 강한 어조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

[정답] ①

[해설] ① ‘소’와 ‘장작개비’ 등의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 있기는 하다. 하지만 개인의 행위에 대한 비판이자 안타까움일 수는 있어도 현실을 비판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 ② 처음 부분에서 ‘칠수’가 비판하고 있는 대화 상대자의 생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 ③ ‘이 씨’ 아저씨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 ④ ‘못 해.’, ‘틀렸어.’, ‘-는 거야.’ 등 강건한 태도로 단정적 표현을 주로 쓰고 있다.

문 17. 밑줄 친 한자 성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족을 위해 어떤 일이든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겠어요.
- ② 조직의 발전을 위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감싸 안아 줘요.
- ③ 고생하다 돌아가신 어머니님 생각에 풍수지탄(風樹之嘆)을 금할 수가 없어.
- ④ 자존심 강한 그이지만,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불치하문(不恥下問)할 줄 알아.

[정답] ②

[해설] ‘읍참마속(泣斬馬謖)’은 제갈량이, 군령을 어겨 전투에서 패한, 부하 마속을 울면서 참형에 처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성어로, 큰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리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어지는 ‘감싸 안아 줘요’와 전후 맥락이 맞지 않는다.

[오답풀이]

- ① 견마지로(犬馬之勞): 개나 말 정도의 하찮은 힘이라는 뜻으로,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이르는 말.
- ③ 풍수지탄(風樹之嘆):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윈 자식의 슬픔.
- ④ 불치하문(不恥下問): 손아랫사람이나 지위나 학식이 자기만 못한 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묻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

문 18. 밑줄 친 단어 중 표준어인 것은?

- ① 살다 보면 별 희안한 일이 다 생기지요.
- ② 고향에서 온 편지를 뜯어본 그의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 ③ 이렇게 심하게 아픈 줄 알았더라면 진즉 병원에 가 볼 것을 그랬다.
- ④ 그가 것처럼 흉칙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정답] ③

[해설] ③ ‘진즉(趁卽. 좇을 진, 곧 즉)’과 ‘진작’이 모두 표준어이다.

[오답풀이]

①번은 ‘희한한(稀罕-)’, ②번은 ‘착잡하기(錯雜-)’, ④번은 ‘흉측스러운(凶測-)’이나 ‘흉악망측스러운’이라 써야 바르다.

문 1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시아버지 윤 직원 영감이 처결하기를, 집안의 살림살이 전권(全權)을 마땅히 물려받아야 할 주부 고 씨는 제쳐 놓고서 한 대(代)를 경충 건너뛰어 손주 대로 내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고

씨의 며느리 되는 박 씨 즉, 윤 직원 영감의 맏손자 며느리가 시할머니의 뒤를 바로 이어서 집안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묻지 않아도 내가 주부로 들어앉아 며느리를 거느리고 집안 살림을 해 가는 어른이 되겠거니 했던 고 씨는 고만 개밥에 도토리가 되어 버리고, 도리어 시어머니 오 씨 대신에 며느리한테 또다시 시집살이를 하게끔 된 셈이었습니다.

- 채만식, '태평천하' 중에서 -

- ① 윤 직원 영감은 실망이 컸겠군.
- ② 시할머니는 자애로운 분인 것 같아.
- ③ 박 씨는 부유한 집안에서 시집왔겠군.
- ④ 고 씨의 현재 심경은 아주 절망적일 거야.

[정답] ④

[해설] ④ 제시문의 끝에 보면, '고 씨'는 '개밥에 도토리'가 되어 버리고, 며느리한테 또다시 시집살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현재 심경은 아주 절망적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③번은 제시문으로는 알 수 없고, ①번은 아들 내외가 미덥지 않아 윤 직원 영감이 손주에게 살림의 전권을 맡겼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지만, ④번이 그보다 확연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정답으로 삼는다.

문 20.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극의 진행과 등장인물의 대사 및 감정 등을 관객에게 설명했던 변사가 등장한 것은 1900년대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변사가 있었지만 그 역할은 미미했을뿐더러 그마저도 자막과 반주 음악이 등장하면서 점차 소멸하였다. 하지만 주로 동양권,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변사의 존재가 두드러졌다. 한국에서 변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극장가가 형성된 1910년부터인데, 한국 최초의 변사는 우정식으로, 단성사를 운영하던 박승필이 내세운 인물이었다. 그 후 김덕경, 서상호, 김영환, 박응면, 성동호 등이 변사로 활약했으며 당시 영화 흥행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컸었다. 단성사, 우미관, 조선 극장 등의 극장은 대개 5명 정도의 변사를 전속으로 두었으며 2명 내지 3명이 교대로 무대에 올라 한 영화를 담당하였다. 4명 내지 8명의 변사가 한 무대에 등장하여 영화의 대사를 교환하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한 명의 변사가 영화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영화가 점점 장편화되면서부터는 2명 내지 4명이 번갈아 무대에 등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변사는 악단의 행진곡을 신호로 무대에 등장하였으며, 소위 전설(前說)을 하였는데 전설이란 활동사진을 상영하기 전에 그 개요를 앞서 설명하는 것이었다. 전설이 끝나면 활동사진을 상영하고 해설을 시작하였다. 변사는 전설과 해설 이외에도 막간극을 공연하기도 했는데 당시 영화관에는 영사기가 대체로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필름을 교체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코믹한 내용을 공연하였다.

- ①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변사가 막간극을 공연했다.
- ② 한국에 극장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경이었다.
- ③ 한국은 영화의 장편화로 무대에 서는 변사의 수가 늘어났다.
- ④ 자막과 반주 음악의 등장으로 변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정답] ③

[해설] 구체적인 정보 확인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 영화가 점점 장편화되면서부터는 2명 내지 4명이 번갈아 무대에 등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보면 ③번이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막간극’은 한국에 관한 내용이다.
- ② “한국에서 변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극장가가 형성된 1910년부터인데”라고 하였다.
- ④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변사가 있었지만 ~ 자막과 반주 음악이 등장하면서 점차 소멸하였다.”라고 하였다.